

국감현장 - 광주지방국세청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저 질타 “제주 관할권 광주로 되돌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광주 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역경제 어려움을 배려하는 세정행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청장의 능동적 자세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관할권을 다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에 뒀다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민주당총장 의원은 “광주와 전남·북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음부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많은데도 세정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청 관내 법인수는 4만8557개로 대전(4만3893개), 대구(3만6677개)청과 비교해 5000~1만2000개 나 많은 만큼 지원할 법인이 적어 지원액이 적은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지적대로 타지역에 비해 영세사업자가 많고 소득도 낮다. 세정지원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세수 총액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율로 따

지면 결코 다른 청에 비해 적지 않다. 하지만 보다 많은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보고 중 세수관리와 체납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광주와 대전청의 체납 징수노력이 부족한 걸로 나온다. 광주청은 2011년 조직성과 평가 결과(BSC) 체납징수액 실적이 좋지 않다. 능력이 나 노력 부족인지 특별한 지역사정이 있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꼬집었다.

서 청장은 “올 7월 현재 체납액은 94억원 감소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의적 은닉은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해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재성 민주당총장 의원은 “어제 광주에 내려와 지역 인사로부터 예전에는 제주도가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이었다고 들었다”며 “제주지역은 광주청 관할로 해야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청장은 “1972년이나 74년께 관할권이 부산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경제교류가 부산

쪽과 많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 호남 분리정책, 지역 고립책 하나로 관할권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주에 대한 관할권을 부산청으로 옮긴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총장 의원은 “광주청은 고유전통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명인들이 많고 향토업소가 가족 중심으로 영세한데 이들을 보호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기연장, 징수유예는 잘 되고 있는데 조기환급 등은 대폭 줄었다. 세제지원이 늘어나 하는데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청장은 “해마다 실적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향토업소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승낙하고 있다.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재성기자 lion@kwangju.co.kr

대선캠프 24시

안캠프에 암채 민주당원

당적 정리 않고 활동 ‘기회주의’ 처신 눈총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 내에 민주당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캠프 내에 활동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까지 민주당원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원 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인사가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 당적을 맡았던 인

사들도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서는 민주당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타 후보 진영에 있었던 인사들이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안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원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인사들이 캠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와준다는데 당적을 정리하고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원들이 안 후보 캠프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권 창출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게 당적을 정리한 뒤,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선

가며 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민주당의 통합합 사례가 이같은 기회주의적 현상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원을 보유하고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한 모 인사는 “현재 야권은 보다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안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며 “당적 논란은 지엽적이며, 문제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치 행태를 어떻게 이뤄내느냐”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대희 새누리 새신위원장 “실세들 인사전횡 막겠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8일 “대통령의 측근들과 실세들이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을 막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국회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쇄신 목표에 대한 질문에 “측근과 실세들이 인사권을 전횡하게 되면 결국 정부 기관의 기능이 왜곡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이상득 전 의원과 박

영준 전 차관이 구속된 것도 결국 인사권 전횡 논란이 단초가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산적한 정치 쇄신 현안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정

당과 선대위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쇄신안의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경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의장과는 “그분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며 각자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 된다”며 갈등이 마무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 북구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로호 발사 참여 항우연 연구인력 45명 유출

이낙연 의원 국감서 지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급

나로호 3차 발사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인력의 인력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나로호 1차 발사 이후 다

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직한 인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이후 현재까지 이직한 직원은 무려 3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이직 기관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삼성 등 기업이 27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타 부처, 공공기관,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이직 인원 45명 가운데 36명이 비정규직 연구원이어서 우주연구 인력 운용에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5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

규직 직원은 2명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47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이직이 속출하고 있어 우주개발 관련 조직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안한 고용 상태와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3차 나로호 발사 이후에도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3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2년 11월 12일(월) 12:30분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 참가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남자 순수 아마추어 골퍼에 한함
 | 제외대상 | 가. 현재 각종 프로협회에 등록된 골퍼선수 나,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 다.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참가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자.
 | 경기방식 | 샷간, 신페리오방식 적용
 | 적용규칙 | 대한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골퍼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룰 적용
 | 참가인원 | 160명(40팀)
 | 참가비 | 1인당(6만원) (그린피, 개별소비세, 캐디피, 그늘집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
 | 신청기한 | 2012년 10월 15일 ~ 10월 19일(금)
 | 참가신청 | 온라인접수 - 함평다이내스티 홈페이지(hpdynastycc.co.kr) 광주일보사 홈페이지(kwangju.co.kr)
 | 예금계좌 | 농협 641087-51-043326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접수 마감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기념품 | 골프용품, 만찬제공

특전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 등
 - 가. 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나. 준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대우
 - 다. 메달리스트(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
 - 라. 통게스트(1명) : 트로피 및 부상 마. 나이어리스트(1명) : 트로피 및 부상
 - 바. 홀인왕상(1명) : 중형급 승용차 1대 사. 행운상 : 상품 다수
- US-GTF 티칭프로라이센스 실기테스트 합격권 부여
 - 가. 남 77타, 장년부 79타, 시니어 82타
 - 나. 장년부 : 만 41세~49세(11월 12일 기준)
 - 다. 시니어 : 만50세 이상(11월 12일 기준)
- US-GTF 라이선스 소지자 함평다이내스티CC 주중 회원대우

| 주최 | 6S 광주일보사 | 주관 |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 진행 | US-GTF(KOREA)
 | 후원 |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골프협회 | 문의 | 061-320-7777, 320-7700

빛의만평

- 김종두

호남 구애

가관이군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